

유나는 초등학생때부터 스페셜올림픽 활동에 참가해왔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은 유나뿐만이 아니라 유나의 가족에게도 특별합니다. 유나의 어머니는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회장을 맡고 있으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유나의 17살 동생은 뉴햄프셔 지역의 통합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통합농구리그를 시작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의 통합스포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한 팀을 이뤄 교감하고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무너뜨리기위해 노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나는 8년 전 다리근력증진의 일환으로 운동을 시작한 뒤 스페셜올림픽 수영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현재 유나는 “스페셜올림픽은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스포츠활동뿐만 아니라 스페셜올림픽 위원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재주가 많은 선수입니다. 유나는 2013년 평창 스페셜올림픽 세계 동계 대회의 청소년 대표회의에서 공동 의장을 맡았으며 2011년 그리스 스페셜올림픽 세계 하계 대회의 청소년 대표회의에서는 의장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오늘날 유나는 통합스포츠의 일환인 통합밴드의 드럼연주를 통해 스페셜올림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나밴드’라는 이름을 가진 이 특별한 밴드는 5명의 지적장애인과 2명의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유나는 현재 4학년으로 음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유나는 “통합스포츠와 드럼연주는 저에게 모든 것 입니다. 한국에서 아직 초기단계인 통합스포츠에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저는 드럼연주를 할 때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밴드에서 연주를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스페셜올림픽은 유나에게 열정이라는 감정을 찾아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주었습니다.